

# 전남대 의학 409점·조선대 의예 407점

## 2026 수능 광주 고3 실재점 결과

한국에너지공대 397점·GIST 391점·광주교대 362점

시교육청 진학팀 등 분석…19~23일 '1대1 정시 상담'

2026학년도 대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광주지역 고3 수험생들의 실재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인문계열 398점, 자연계열 399점 내외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남대 의학과(지역) 409점, 치의학과(지역) 405점, 조선대는 의예과(지역) 407점, 치의예과(지역) 404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의 실재점(국·수·탐표준점수 600점 기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398점, 자연계열 399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 응시기준(수학(미적분/기하)+과탐(2과목), 단 I+II 조합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을 충족한 학생들의 표본에 의한 자료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391점, 자연계열 39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397점, 광주과학기술원(GIST) 391점,



9일 광주 서구 화정동 서석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와 수험생들이 대학 정시모집 배치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학년도 대수학능력시험 실재점 결과 전남대 의학과(지역) 지원 가능 점수는 409점, 조선대 의예과(지역)는 407점으로 분석됐다. 올해 수능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이 광주지역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수능 실재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소수 어렵게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준 점수는 2026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의한 것이며 수시 이월 인원 발표 시 확정 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며 "배치 기준 점수는 표준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국·수·탐 600점 기준이므로 영어

등급점수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 된다"며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불리를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11일 오후 4시 광주시 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담임교사)을 대상으로 실재점 결과분석설명회를 열고, 같은 장소에서

대상으로 '수능 실재점 반영 정시모집 지원 전략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9~23일(일요일 제외)에는 광주 진로진학지원단 및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진학전문교사 48명이 학생, 학부모 24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시모집 대비 1대 1 집중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숙박업소 차량서 현금 훔친 40대 구속

숙박업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9일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5분 서구 풍암동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차량에 침입해 현금 40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 사라졌다'

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고속도로 후계소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숙박업소 종업원인 A씨는 대리 주차를 위해 투숙객의 맡긴 차량 열쇠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현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발부받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보훈부, 5·18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 추진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5·18민주유공자에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훈부는 80세 이상 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훈부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국민참여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도 접수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전남 시민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해야"

###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참석 거부도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내란 부역자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제7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참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우리는 지난해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심각한 퇴행과 위기를 지켜봤다. 안 위원장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내란 권력의 범폐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인권의 이름으로 5·18의 송고한 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조한 안창호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참석을 강행하려는 것은 인권과 시민 모두를 모독하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 등 행사 참여 불가 결정', '인권위 내부 성 비위' 등

등 이유로 인권위가 구조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인권적 결정과 언행으로 인해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조차 공식 진정을 제기하며 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는 현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반인권적 태도로 누적되어 앓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같으로 단체는 "안 위원장의 일련의 행태는 개인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내란 부역·5·18 정신 훼손·혐오 방조·인권 감수성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인권퇴행의 증거다"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내란 부역과 인권 후퇴를 초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앞에

서 '내란 부역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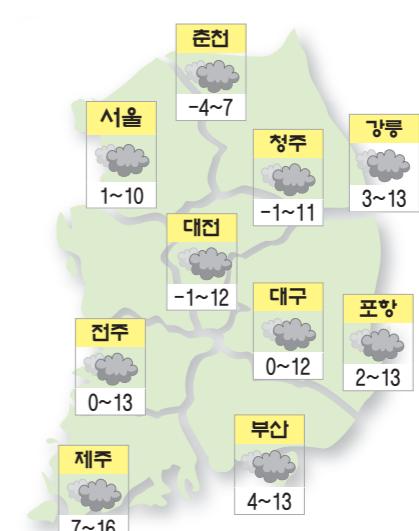
이 자리에서 단체는 안 위원장의 직위 박탈, 국가인권위 위원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보장 기능

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 오늘의 날씨

해물 07:30  
해금 17:20  
일풀 23:07  
일금 11:56



광주	1~13
목포	3~12
여수	4~11
순천	0~12
구례	-1~13
광주	-2~13
완도	2~13
목포	8~13
고흥	-1~13
진도	2~12

민세미지 낙상하세요!

구례

목포

여수

순천

구례

광주

완도

목포

여수

광주

목포

여수

광주